

## 2010 문화계 결산

◎ 문학출판·문화재



2006년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관모 등의 유물이 긴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지난 6일 전남대박물관에서 지역 관람객들에게 첫 선을 보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중진작가 맹활약.. 문화재 발굴·전시 활발

2010년 한해는 광주·전남 출신 중진 작가들의 활약이 어느 때 보다 두드러진 해였다.

소설가 조정래(67)씨는 지난해 자전에 세이집 '황홀한 들판감옥'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대기업의 비리와 권력자들의 비밀을 신랄하게 파헤친 장편소설 '허수아비' 출간해 주목을 받았다.

한승원(70)씨도 소설집 '희망 사진관'에 이어 올해에는 자전적 소설 '보리 닻되'를 출간, 노의장을 과시했다.

'허수아비' 춤 '이별하는 골짜기' 등 주목.. 서점·출판계 불황 여전

국립광주박물관 재개관.. 백제 금동관모·목간 등 관람객에 공개

소설가 임철우(56·한신대 문창과 교수)의 상승세도 감지됐다. 작품활동이 둘 했던 임씨는 지난 9월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들을 애정이 어린 시선으로 다독이는 장편소설 '이별하는 골짜기'로 돌아왔다.

작가들의 각종 상 수상 소식도 잇따랐다.

올해로 등단 50년을 맞은 이성부(68) 시인이 지난 5월 시집 '도둑산길'에 실린 시 '백비'로 제18회 공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9월에는 장흥 출신 소설가 이승우(50·조선대 문창과 교수)씨가 단편소설 '칼'로 황순원문학상의 영예를 얻었다.

또한 정년퇴직하고 고향인 담양군 남면 '생오지'에서 창작활동과 후학양성에 전념하고 있는 문준태(69)씨는 지난해 발표한 소설집 '생오지 뜰부기'로 '제7회 채

만식 문학상'을 수상했다.

젊은 작가 중에는 이대흠(42) 시인의 활약이 돋보였다. 장흥 출신인 이 시인은 연초 발간한 시집 '귀가 서럽다'로 '육사 문학상'의 '젊은 시인상을'을 거머쥐었다.

광주를 대표하는 문인인 디향 김현승 시인의 단행 100년(2013년)을 앞두고 올해도 역시 학술발표회와 문학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 경매지나 고행에서는 각종 문학제와 문학기행도 이어졌다.

았다.

먼저 지난 9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하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이 지역의 대표 문화재 전시·교육 기관으로 거듭난 것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다. 지난해 6월부터 총 공사비 80억원을 들여 연면적 7,055㎡(지상2층, 지하4층)의 전시관 내부의 구조 보강과 전시설치를 교체했다.

또 영암강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국립나주박물관도 지난 15일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국립나주박물관은 부지 8만9869㎡,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전시실과 수장고, 아외전시장 등이 조성되며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발굴과 보존 작업을 거쳐 묻혀있던 문화재들이 새 빛을 보는 한 해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관모 등의 유물이 긴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지난 6일 전남대박물관에서 지역 관람객들에게 첫 선을 보았다.

지난해 나주에서는 발굴된 사비 백제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목간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1400년 전 태극문양이 보존 처리를 마치고 세상에 공개됐다.

또 1월에는 여수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긴 비파형동검(43.4cm)가 발굴됐고, 10월에는 영암에서 삼국시대 대형 고분과 토기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지난 10월 영암에서 찾은 지붕까지 남아 있는 가마터 등도 올해 이문 고고학의 큰 성과다.〈끝〉

문화재 분야도 올 해 활발한 발굴과 전시 공간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한국능률협회선정 (2005~2010)  
**1** 6년연속 브랜드파워 1위

브랜드스톡선정 (2005~2010)  
**1** 6년연속 브랜드스타 1위

한국표준협회선정 (2007~2008)  
**1** 2년연속 KS-SQI 서비스품질지수 1위

예약문의  
**062-224-0022**

광주 무안 직항기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전일빌딩 1층 투어뱅크

구 도청  
금남로



**마카오 | 홍콩 | 심천**  
요금 899,000원~

★출발날짜: 12월 23일~2월 3일(매주 목, 일 출발)  
★특전  
◆광주~무안공항간 왕복 셔틀버스 운행  
◆빅토리아 피크트램 탑승(평도)  
◆심천 관광(심천민속촌, 동양 각 나라의 민속집, 몽골리안 마장소, 소인국, 환상적인 민속촌)  
◆마카오 관광(관음당, 세나도광장, 성바울 성당, 미카오 역사 유적지, 포르투갈식식), 마카오 카지노 관광  
◆한중 더 업그레이드 된 알제리과 한식  
◆수험생들 10만원 할인(12월 26일 날짜한정)

**옛거리 완전 정복**  
상해 | 항주 | 서당 | 4일 | 5일  
요금 429,000원~

★출발날짜: 매주 수/토요일(12월 23일부터 월/목요일 추가)

★특전  
1. 상해옛거리/항주 청하방옛거리/서당 석피농= 옛거리 완전 정복  
2. 항주 - 서로 유람선, 호설고악적, 성황각, 성황묘  
3. 상해 - 동방명주, 신천지, 남경로, 황포강유람선, 서커스  
4. 서당 관광 - 서원, 단축박물관, 장경 근조예술관, 쪽배놀이



**일본 부관웨리 3박 4일**  
- 아소팜 특급호텔 숙박  
요금 439,000원~

★ 출발날짜: 매일출발  
★ 광주여 출발  
★ 특전  
◆ 특급 아소팜 빌리지 온천 호텔 숙박  
◆ 아소팜 빌리지에서 70가지 메뉴의 월드뷔페 레스토랑 석식 제공  
◆ 벳부 가마도 지속온천 순례 및 우노하나 관광  
◆ 일본의 아기자기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긴린코 호수관광  
◆ 세계 최대급 칼데라산 아소산 관광



**새해 맞이 베이징 5일**  
요금 349,000원~

★ 출발날짜: 12월 31일  
★ 특전  
◆ 만리장성에서 보는 새해 이벤트(해돋이도 보고 떡국도 먹고)  
◆ 5성급(☆☆☆☆☆)호텔 사용  
(춘추원 온천호텔 1박으로 여유로운 휴식)  
◆ 피로를 회복해주는 밤마사지 포함  
◆ 중국문화의 진수 천자서(天子書) 관광  
◆ 4대특식-샤브샤브, 북경 오리국수, 한식(불고기), 북한식 등 다양한 식사 제공  
◆ 각광마다 중국 전통차 증정



## 일상 속 풍경을 맑고 고운 詩語로

허형만 교수 열세 번째 시집 '그늘이라는 말' 펴내



일상 속 풍경을 사물을 감상하고 곱게 다듬어 주목같은 작품을 쏟아냈다.

특히 '그늘이라는 말'에 전작에 비와 송편, 손톱, 별, 꽃, 나비, 길 등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소재에서 시상을 찾고 맑고 고운 체로 걸려 자신만의 시어로 창조해내는 솜씨는 일품이다.

아버지가 흐적을 1년 늦어난 것이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유산이라며 호탕하게 웃는 시인은 정년을 앞두고 90편의 시편을 3부로 나눠 엮었다. 시는 모두 신작이며 그가 인식년 차 어머니가 계신 지리산 깊은 곳에 머물면서 창작한 것이 대부분이다.

작고 미세한 것과 평범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묘사해내는 능력이 출중한 허 교수는 이번 시집에서도 차분한 어조와

작가는 또 '사람을 노래함'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은 사람이다"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날고 있을 땐 길을 잊지 않는다"는 말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는 허 교수는 시인의 말에서 "시인이 시를 쓰다는 말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다. 시 한 편은 목숨을 건다는 것, 그래서 말을 잊은 지 오래, 오로지 내 안의 나를 찾기 위해 노모와 누이가 있는 자리 깊은 곳에 들곤 했다"고 썼다.

순천 출생인 허 교수는 중앙대 국문학과를 나와 1973년 월간 '문학'으로 등단해 '청명', '풀잎이 하나님에게', '비 잠시 그친 뒤', '첫 차' 등의 시집을 펴냈으며 영광시문학상과 삼연수문학상, 월간문학동리상, 전남도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아트센터 대담에 가면 '너도 나도 모델'

## 29일 비움채움 패션쇼

쇼를 기획했다.

참가자들이 입는 의상은 패션 디자이너 니카눌(김순일)의 작품. 강진 출신으로 조선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니카눌은 뉴욕·파리·런던 패션쇼 등에 참여했으며 광주 충장로와 예술의 거리 등에서 매장을 운영했다.

미술관 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옷 1벌도 챙겨와 패션쇼에서 직접 입고 위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다양한 아프리카 미술을 만날 수 있는 '아



프리가 특별전-꿈꾸는 겸은 유혹'전시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으로 패션쇼에서 입을 옷과 간단한 식사, 차를 제공한다. 문의 061-381-0081./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현대인의 정체성을 찾아 이조홍 개인전

## 31일 예술의 거리 주 갤러리

독특한 회화와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조홍씨가 오는 3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주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BRAND NEW'를 주제로 신상품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들어다본 회화, 사진, 설치,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군중 속의 외로움과 의미를 '툇모습'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더욱 다양한 장르와 기법으로 현대인의 외로움과 정체성을 이야기 한다.

지난 2009년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한 젊은 작가이며 1회의 개인전을



'BRAND NEW'

가졌다. 광주시립미술관 팔각정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하는 등 활발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키스해링전 보러오세요

농성동 주민들 무료 초청

눈부신 색감으로 지역 화단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키스 해링전'(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2011년 2월 27일까지)에 미술관 인근 지역인 농성동 주민들을 무료·초대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오는 2011년 1월 4일 서구 농성1·2동 주민을 초청해 무료관람 및 전시설명회를 연다. 이를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주소지 증명서류를 가지고 오면 된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빛나는 아이' 등 팝아트의 거장 키스 해링의 대표작 150여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613-539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